

안성현 나주 현대음악제 5년만에 열린다

4~6일 나주문예회관 등
원베르크 '달에 홀린 빼어로'
광주·전남서 첫 공연

인구 15만명의 작은 도시 독일 다름슈타트는 현대음악의 성지로 꼽힌다. 현대음악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고 어려운 장르이긴 하지만 '한국의 다름슈타트'를 꿈꾸며 나주는 작은 움직임의 연속이었다.

나주에서 현대음악제가 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나주에서 활동중인 (사)문화공동체 무지크바움은 지난 2007년 처음 나주현대음악제를 시작했고 이후 나주 출신으로 '엄마야 누나야'를 만든 안성현 작곡가의 이름을 붙여 4차례 행사를 진행했다.

예산 문제로 멈춰있던 안성현나주현대음악제가 5년만에 부활했다. '추억 그리고 기억'을 주제로 한 제5회 나주안성현현대음악제가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6일까지 나주 문예회관 등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음악회 일정을 3일로 늘리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함께 고려, 관객들이 좀 더 쉽게 현대음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배려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4일 오후 7시 안성현 홀에서 열리는 전야제 콘서트는 현대음악의 대명사 원베르크와 메시앙의 곡들로 꾸며진다.

첫곡은 메시앙의 '시간 종말을 위한 사중주'다. 이 곡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던 메시앙이 작곡한 곡으로 1945년 1월 포로수용소 내, 5000여명의 동료 포로들 앞에서 초연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새들의 심연' 등 총 8곡 중 3곡이 연주된다.

또 현대음악의 교과서와 같은 작품으로 꼽히는 원베르크의 '달에 홀린 빼에



“엄마야 누나야 영산강변 살자”

〈안성현 작곡〉

추억 그리고 기억



마이저링 이영조 안일용 김선철

5일 '안일용 무대 퍼포먼스'
6일엔 '관현악의 밤'
전 공연 무료 입장

로'가 공연된다. 광주·전남에서는 처음 연주되는 곡으로 송미나, 김경아, 윤성근, 김미나, 박효은, 심고은, 조우씨씨가 들려준다.

11일 5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예회관에서는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서 여러 차례 음악을 발표한 안일용 작곡가의 무대 퍼포먼스 실내악 '731-마루타 진혼곡'이 연주된다. 일제시대 731부대의 만행을 표현한 작품으로 전통적 실내악과 연극적 무대 배경, 음악가의 퍼포먼스, 현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곡이다.

바리톤 한정현씨를 비롯해 김미진·원영아·이현동·강승용·김기수씨가 함께 연주한다.

마지막날 공연(6일 오후 7시30분 나주문예회관)은 좀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관현악의 밤'으로 준비했다.

나주현대음악제 상임작곡가인 김선철씨의 '바리톤과 관현악을 위한 종소리'(협연 임해철), '바위고개'로 유명한 아버지 이흥렬의 뒤를 이어 작곡가로 활동중인 이영조의 '섬집아이 환상곡'과 '여명'이 연주된다. 또 김선철 곡 '관현악을 위한 부용산 주제에 의한 변주곡'(나주소년소녀합창단 협연)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다름슈타트 음악대학 학장 코르드 마이저링의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라크리메(Lachrimae)'도 연주된다. 협연은 (사)무지크바움 앙상블이다. (사)무지크바움 카페 cafe.daum.net/najamusikbaum. 문의 010-6422-199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출신 김애순 시인 '겨울 그 뒤' 출간

“뜨락엔 떨고 있는 나뭇의 그림자/ 계절은 소리 없이 세월을 잣고/ 서정의 침묵만 낙엽처럼 쌓여 가는데/ 그 어디쯤/ 시간을 삼킨 철새는 낡은 깃털 퍼덕이며/ 빈 하늘을 날고 있을까”(‘삶의 포구에서’ 중)

깊어가는 가을, 인생의 의미를 관조하는 시집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광산 출신 김애순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겨울 그 뒤'(한림)는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깊은 눈으로 성찰한다. '산다는 건', '차집의 오후', '간이역에서' 등 각각의 부제는 시인의 삶을 관통하는 정서적 총체로



집약된다. 한편 김 시인은 지난 95년 '문학춘추'에 '겨울바다'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오동꽃 필 때'를 펴냈다.

2013년 담양 남면초등학교 교감을 마지막으로 명퇴한 뒤, 현재 광주문인협회 이사, '전남문학'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창작을 병행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대구 문화재단 손 잡았다

문화예술 교류·업무공유 등 사업 공동 추진

광주와 대구 문화재단이 양 지역 문화교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과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심재찬)은 지난 30일 대구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 교류사업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구의 옛 지명 '달구벌'과 광주 순우리말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 '달빛동맹' 교류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지원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협력 ▲문화예술분야

의 상호 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문화적 운영 역량 제고 ▲문화예술분야 상호 자문 및 공동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위한 협력 등이다.

광주와 대구는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업무공유 및 성과확산, 직원 상호 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류 등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교류를 위해 최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광주 예술 문화예술교류공연을 개최한데 이어 무등산과 대구 팔공산 탐방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직장인 극단 '우연'의 공연 모습.

극단 '청춘' 직장인·청소년 극단 단원 모집

극단 '청춘(대표 오설균)은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아마추어 극단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 극단 '우연'과 청소년 극단 '청연'이 각각 단원을 모집한다.

'우연'은 지난 2011년 12월 창단 후 매년 1~2회 정기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팀으로 20~30대 직장인이 주축이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통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3개월에 5만원이다.

'청연'은 광주 전남의 거주하는 15세~18세 청소년이 활동하는 팀으로 매년 창작극, 뮤지컬 등 2~3편을 무대에 올린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진행되며 참가비는 월 5000원이다.

두 극단 모두 마감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오디션은 14일 열린다. 홈페이지(cafe.daum.net/cctheater)에서 지원서를 받아 이메일로 접수(cctheater@hanmail.net)하면 된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제7기 입주작가 발표전

8일까지 중국 베이징 798예술특구 갤러리 FORCE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북경창작센터 제7기 입주작가 발표전'을 8일까지 중국 베이징 798예술특구 갤러리 FORCE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설박, 윤준영, 정성준, 황정후를 비롯해 단기입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작가 까오핑, 위웨이, 황쉬가 참가해 회화, 설치, 사진 등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한·중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양국 미술의 특징과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비교해 보는 즐거

움을 느낄 수 있다. 지난 5월 입주작가들은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해 한·중 문화예술계 인사 200여명이 북경창작센터를 방문하는 등 호응을 이끈 바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중국 베이징 조양구 파산즈 환티에 예술정에 개관한 북경창작센터는 지금까지 입주작가 30명이 왕성히 활동하는 등 한·중 미술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정성준 작
'The travels of Ring Tailed Lemur brothers'



4층 상가매매
(첨단지구,쌍암동)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식당)
2층 (노래연습장)
3층~4층 (pc방,사무실)

월 수익 (980만)
(보 1억1천, 용 3억)

매가 13억

2층 상가 매매
(나주시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
(토 205평, 건135평)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 앞

1층 6칸(올임대)
2층 2칸(사무실)

(보2천, 용1억2천 - 월수익 200만)

매가 3억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매가 7억

법률경매

-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8억3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룬 54개-8층, 주택검사무실)
-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지사 부근
- 북구 두암동 (토 44평, 건 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지하 (점포) 1층 (점포) 2층~4층(주택)
☆두암초교 부근, 도로점 코너자리
- 서구 치평동 (토 3평, 건 90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10층 중 7층 (상무지구 변화가 위치)
유흥지점 운영자 추천
- 북구 유동 (토 240평, 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17억**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

경매교육

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대지 144평,건 260평) → 매가 17억
-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터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8억) → 매가 27억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대지 122평,건423평) → 매가 28억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9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 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5백, 월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용4천) (보5백, 월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용2천) (보3백, 월33만) → 매가 4천5백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윤천역 1번출구 3분 (용2천) (보3백, 월32만) → 매가 3천6백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시설, 통건물)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빌딩지역,아파트단지 (보2천, 월25만) → 매가 3억8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